동우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임보미(편집국) 장재웅(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김승현(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최화정(편성전략본부) 채성일(콘텐츠플러스본부) 김민지(보도본부)
정규현(전략기획본부) 강혜빈(콘텐츠사업본부) 박동엽(경영지원본부)
김도윤(동아E&D) 오혜정(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822)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vol. 284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 DA-Campus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3면	10년째 아침을 여는 〈돌직구 쇼〉… 간판 시사 프로 '우뚝'	4면	동아 마라톤 대회 열기, 하반기에도 계속 된다

"반박불가 유튜브 만들 것"…100회 맞은 〈동앨과 뉴스터디〉

100회 특집 라이브 방송에 1만3000명 접속

〈동앨과 뉴스터디〉에 쓰일 자석 자료를 만드는 모습. 동료 PD들이 자료 제작을 도와주기도 한다.

황진선 PD가 촬영에 쓰일 장비를 옮기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시작한 유튜브 〈동앨과 뉴스터디〉가 누적 조회 수 4200만 회를 기록했다. 동정민 앵커(가운데)와 황진선 PD(오른쪽), 김정연 작가가 합심해 매주 복잡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준다.

'동앨, 노량진 갈 생각 없나요?'
'속도 시원하지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서 좋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100회 특집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동정민 앵커가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정민 앵커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월 23일 100회 특집으로 진행한 〈동앨과 뉴스터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댓글이 쏟아졌다.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과테말라 등지에서 1만3000명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 접속해 방송을 시청했다. 진행자인 동정민 앵커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뉴스터디 TOP5를 소개하고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어가며 1시간가량 소통했다. 100회 특집이 끝난 뒤 뉴스의 '일타강사'로 꼽히는 동 앵커를 만났다.

동 앵커가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뉴스가 너무 어려워서"였다.

"당시 대장동 이슈가 굴러가던 때였는데, 저처럼 뉴스를 매일 진행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시청자들은 오죽할까 싶었죠. 복잡한 뉴스를 한 방에 정리해 주고 싶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동 앵커는 "물론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며 웃었지만, 지난해 9월 방송된 첫 회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다룬 유튜브에는 '정민쌤 속이 뻥 후련해요', '너무 좋다 시청각 교육', '와 이 형 정리맛집', '동 앵커님, 잘 배우고 갑니다' 등 1200개 가량 댓글이 달렸다. 이후 99번의 방송이 이어지는 동안 채널A 유튜브를 찾는 시청자들은 더 늘었다.

그 이유로 동 앵커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힘'을 들었다. 그는 "이슈는 계속 이어지는데 뉴스는 하루살이지 않나"라며 "팩트를 툭툭 던지는 건 모두가 하는 것이고, 그 이슈를 치밀하게 파고들어 A부터 Z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전달한다는 것이 우리만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많은 팩트들을 모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사회부를 통해 개별 사건의 판결문과 공소장을 입수하고, 관련 재판 기록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동 앵커는 주말과 점심 시간 등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정독한 뒤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했다. 메인뉴스 앵커, 정치부장에 유튜버까지 '1인 3역'을 수행 중인 동 앵커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 공소장도 그렇고 기자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다. 사실상 채널A의 취재력이 그 안에 다 담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 진영에 따라 양 극단으로 갈려 억지 논리와 왜곡이 빈번한 유튜브 세계에서 "오로지 팩트로만 승부를 본다"는 전략도 통했다. 동 앵커는 "특정 사건을 설명할 때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원고를 쓰면 사회부로 보내 혹시 틀린 팩트는 없는지 감수도 받는다. 그래서인지 유튜브 댓글을 보면 '중립적이라서 좋다'는 얘기가 많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뜨거운 쟁점을 팩트로 다루는 〈동앨과 뉴스터디〉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 기자들도 챙겨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인기는 하얀색 분필을 든 동 앵커의 매끄러운 진행 실력이 바탕이 됐지만, 동 앵커가 직접 칠판에 붙이는 시각자료들도 한몫했다. 한 회당 평균 80개의 시각자료가 쓰이는데, 모두 황진선 PD가 수작업으로 만든다. 황 PD는 "유튜브는 반응이 즉각적이다. 영상에 댓글이 달리면 힘이 나고 버스정류장에서 〈동앨과 뉴스터디〉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분을 봤을 때 너무 뿌듯했다"고 했다. 유튜브 촬영부터 편집, CG와 자료 제작까지 맡고 있는 황 PD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10개월간 100회를 달려오며 〈동앨과 뉴스터디〉의 누적 조회 수는 4200만 회를 넘었다. 한 편당 평균 42만 조회 수를 기록한 셈. 〈동앨과 뉴스터디〉를 통해 유입된 채널A 뉴스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고 있고, 특히 전체 시청자의 약 10%가량은 해외에서 동 앵커를 만나고 있다. 기자를 뛰어넘어 동아미디어그룹을 대표하는 유튜버가 된 동 앵커의 목표는 무엇일까.

"'〈동앨과 뉴스터디〉에서 이랬대'라고 하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어디서든 '이 이슈의 핵심 팩트는 이거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요."

'반박불가 유튜브' 〈동앨과 뉴스터디〉는 매주 토, 일 오후 3시에 업로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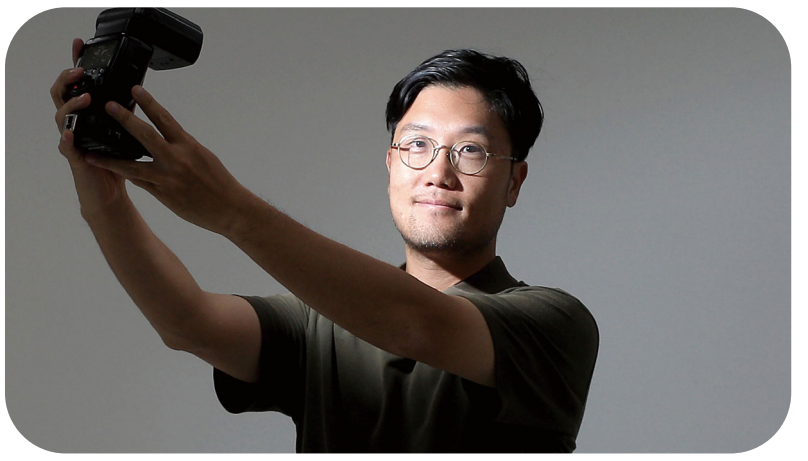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 DA-Campus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첫 시행된 상반기에 동아일보 30명, 채널A 15명 등 총 45명 참여…7월 27일~8월 11일 2학기 대상자 접수

2023년 상반기 처음 실행된 자기주도 학습지원제도 〈DA-Campus〉가 동아미디어그룹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DA-Campus〉는 사원들에게 다방면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다양한 학습 과정 지원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도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반기에는 동아일보 30명, 채널A 15명 등 총 45명이 학습을 마쳤다. 해당 제도는 학기제로 1학기(1~6월), 2학기(7~12월)로 나눠 운영된다. 학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는 학습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학습 소감을 공유했다. 1학기 참여자 중 학습목표가 직무 개발로 이루어진 우수 사례 3건을 소개한다.



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기자

편집국 뉴스디자인팀 갈승은 매니저

편성전략본부 콘텐츠전략팀 정자영 팀장(사진 오른쪽)

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기자

스튜디오 인물 조명 강의를 활용한 주한 미국 대사 인터뷰 사진 촬영

#01

송은석 기자는 사진 조명 브랜드 '프로포토(Profoto)'에서 개설한 조명 강의를 수강했다. 프로포토는 사진을 취미나 업으로 삼는 이라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로 "사진 조명계의 샤넬 같은 존재"로 꼽힌다. 송 기자는 "사진 기자로서 조명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DA-Campus〉를 신청해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고 전했다. 강의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조명 세팅 및 촬영법으로 구성됐다.

송 기자는 5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인터뷰 과정에서 조명 강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했다. 당시 인터뷰 장소는 전통 한옥 형식으로 천장이 높고 조명이 없어 어두웠다. 송 기자는 "조명 강의에서 배운 대로 45도 위로 조명을 배치했다.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대사의 모습이 연출돼 밋밋하지 않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초 동아일보 2면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사진도 1면에 실릴 수 있었다.

송 기자는 "조명 강의 내용이 실제 업무와도 관련성이 높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편집국 뉴스디자인팀
갈승은 매니저

국제인증 ACA(일러스트, 포토샵, 인디자인) 자격증 취득해 뉴스 디자인 편집에 활용

#02

갈승은 매니저는 조판 오퍼레이터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편집·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국제자격증인 ACA(Adobe Certified Associate)를 취득했다. 갈 매니저는 시각디자인과를 전공해 현재도 그래픽 툴을 다룰 수 있지만, 뉴스디자인팀에서 제작하고 있는 인포그래픽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Adobe 프로그램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퇴근 후에 공부해 일러스트, 포토샵, 인디자인 3개 부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갈 매니저는 해당 학습을 바탕으로 뉴스 그래픽 업무 지원과 디자이너로서 커리어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전략팀
정자영 팀장

비즈니스 코칭 강의를 통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함양

#03

정자영 콘텐츠전략팀장은 '비즈니스 코칭'을 주제로 한 6주 과정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조직 관리 등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내용을 두루 다뤘다.

학습 종료 후 정 팀장은 "상대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소통 능력과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협상 스킬을 익히고자 강의를 들었다"며 "수업에서 배운 대로 경청을 통해 점진적으로 팀원 및 유관부서와의 업무 소통 방식을 교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팀장으로 임명된 후 함께 업무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리더십, 협상, 코칭 등의 영역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러한 학습지원 제도가 생겨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DA-Campus〉를 통한 학습 지원은 하반기에도 계속 된다.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2학기 대상자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이나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원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DA-Campus〉에 참여해 직무 연관성이 높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에게는 심의를 거쳐 50만~1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지원국 인사팀 이지원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방준영

검색 한 번이면 OK!…〈협업위키〉 이렇게 활용하세요

지니어스에 게시…각 팀 업무와 협업 매뉴얼 담겨

사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보도본부 A 기자는 담당자를 알아보려 지니어스 공지사항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 '대출'을 입력해 검색해 봤지만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헤맸다.

〈협업위키〉에 들어가 '대출' 두 글자만 입력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나오지만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협업위키〉는 각 팀의 업무분장과 협업 시 상세 매뉴얼을 망라한 DAMG 협업 안내서다. 지난해 7월 모든 실·본부와 계열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위키〉를 구축해 지니어스에 게시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구성원들이 많다.

〈협업위키〉는 콘텐츠 기업의 특성상 수많은 협업이 이뤄지는 만큼 다른 본부나 팀, 혹은 계열사와 협업이 필요할 때 어느 조직의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는지, 그 일을 같이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내 구성원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조직안내'와 '협업위키' 두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조직안내'에는 채널A 및 계열사 모든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협업위키'에는 현장에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매뉴얼이 담겨 있다. 〈협업위키〉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니어스에 들어가 왼쪽 메뉴바에서 게시판을 누르면 하단에 나온다.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키워드만 입력해도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PPL 관련 업무가 궁금할 경우 검색창에 'PPL'만 입력하면 된다. PPL을 담당하는 조직은 어디이고 이와 관련한 협업 매뉴얼은 무엇인지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특파원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특파원'을 검색하면 된다. 담당 조직과 지원 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협업위키〉는 조직 개편으로 업무 분장이 달라지거나 협업 매뉴얼이 바뀌었을 경우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협업 요청 조직과 요청 받는 조직 간 상호 협의해 합의안을 만들고 담당자 e메일(wiki@donga.com)로 수정 요청을 하면 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생방송 중인 〈김진의 돌직구 쇼〉.

〈김진의 돌직구 쇼〉 제작진이 부조정실에서 생방송을 디렉팅하고 있다.

10년째 아침을 여는 〈돌직구 쇼〉… 간판 시사 프로 '우뚝'

종편 점유율 47.9%… 종편 시청자 절반 〈돌직구 쇼〉 시청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시작하겠습니다. 줄여서 신돌쇼, 더 줄이면 돌쇼입니다. 하하."

2013년 7월 8일. 〈돌직구 쇼〉 진행을 맡은 27살의 김진 앵커는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김진의 돌직구 쇼〉로 이름이 바뀐 〈돌직구 쇼〉는 아침 시사교양의 대표 프로그램이 됐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돌직구 쇼〉의 평균 종편 점유율은 47.9%에 달했다. 〈돌직구 쇼〉가 방송되는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종편 시청자 절반 가량이 〈돌직구 쇼〉를 보고 있는 것. 〈돌직구 쇼〉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루틴'이 된 시청자들도 늘었다.

3개월여의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첫 회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김 앵커는 "프로그램을 처음 맡으면서 '지상파도 범접하지 못하는 채널A 간판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당시에는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고 속으로만 다짐하고 스스로를 독려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돌직구 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5년 전부터는 김 앵커의 팬클럽도 생겼다. 김 앵커는 "팬클럽 회원 중에는 10년간 〈돌직구 쇼〉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신 분들이 많다.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했다.

〈돌직구 쇼〉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비결은 매일 핵심 이슈를 특유의 직관적인 시각으로 생생하게 분석해 주는 데 있다. 여기에 매일 90분 간의 생방송을 이끄는 김 앵커의 매끄러운 진행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돌직구 쇼〉 CP인 보도본부 하태원 선임기자는 "김 앵커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쏙쏙 잘 뽑아낸다. 패널들이 편안하게 친구랑 얘기하듯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타 방송에서는 여야 패널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돌직구 쇼〉는 토론은 치열하게 하지만 김 앵커가 중간에서 잘 조율한다"고 덧붙였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돌직구 쇼〉의 특징은 프로그램을 거쳐 간 출연자들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철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등 야권 인사들도 〈돌직구 쇼〉를 통해 아침마다 시청자들을 만났다. 여기에 〈돌직구 쇼〉 롱런의 또 다른 주역은 바로 제작진. 매일 같이 동아미디어센터의 하루를 여는 건 이민희, 김경희 PD 등 〈돌직구 쇼〉 제작진들이다. 이들은 오전 4시 반부터 주요 조간 신문과 전날 방송 뉴스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이슈를 고른다. 김 앵커는 "7년 간 함께 해온 작가들을 비롯해 수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제작진과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정도"라며 "10주년의 영광을 제작진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최종 커플은 누구?…마지막 선택 앞둔 〈하트시그널4〉 화제성 1위

8월 말 종영…김지영·신민규 등 출연자도 화제

〈하트시그널4〉 포스터

김지영(오른쪽), 이후신이 통영 데이트 중 인생네컷을 찍고 있다.

신민규(오른쪽)와 유이수의 순천 데이트 모습.

청춘 남녀들의 원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하트시그널4〉가 최종 결정의 순간을 앞두면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8명 입주자들의 감정선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8월 말 종영하는 〈하트시그널4〉는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유지하며 매회 방송마다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K-콘텐츠 화제성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하트시그널4〉는 7월 4주 차 TV-OTT 비드라마 화제성은 물론, TV비드라마 화제성까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 김지영이 1위, 신민규가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다.

〈하트시그널4〉는 첫 방송부터 OTT 통합 인기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TV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최종 커플은 누구일지, 서서히 드러나는 러브라인 윤곽을 예측하는 것이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던 입주자들의 감정선은 깊은 대화를 통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서로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한 8명의 입주자들은 최종 선택 전, 마지막 1대1 봄꽃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여행 이후 또다시 러브라인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최종 커플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반전을 맞은 입주자들의 최종 러브라인은 8월 25일 밤 10시 50분 〈하트시그널4〉 최종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최화정

〈하트시그널〉, NFT를 만나다

NFT 홀더들이 직접 참여하는 웹예능 〈찌그널〉 제작

하트시그널 NFT 홀더들은 웹예능 〈찌그널〉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홀더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투표를 통해 출연자의 패션, 데이트 코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채널A의 NFT(대체불가토큰) 발행은 '어떻게 하면 콘텐츠 이용자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NFT는 콘텐츠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매개로서, 채널A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과 팬덤이 지닌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콘텐츠 및 엔터 업계에서 NFT는 팬덤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하트시그널〉, 〈강철부대〉, 〈도시어부〉 등 채널A 대표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사랑, 군대, 낚시 등 한 가지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고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모두 시즌제인 만큼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이 공백기 동안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팬덤이 가장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NFT와 연계해 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인터렉티브형 웹예능 '찌그널(찌그러진 시그널)'로 구체화됐다.

〈하트시그널〉 방영 때마다 출연을 희망하거나, 콘텐츠에 극도로 몰입하는 시청자들이 상당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출연자의 데이트 코스를 만들고 OOTD(오늘의 패션) 등을 결정하며 소개팅을 성공시키는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진행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물로 하트시그널 NFT를 가진 홀더들은 4개의 팀으로 나뉘어 투표를 통해 일종의 '아바타 소개팅'을 진행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웹예능으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7월 발행한 하트시그널 NFT 홀더들에게는 '찌그널' 참여 외에도 굿즈 제공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채널A의 NFT 발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도시어부〉와 〈강철부대〉 IP를 활용한 NFT를 발행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NFT를 통해 IP 경험의 확장을 계속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 김상하

동우

2023. 8. 10. 목

동아 마라톤 대회 열기, 하반기에도 계속 된다

2023 서울 달리기 접수 하루 만에 1만1000명 몰려 역대 최단 시간 마감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대한 '러너'들의 뜨거운 관심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9월 공주백제마라톤, 10월 서울달리기와 경주국제마라톤, 2024년 서울마라톤 얼리버드 접수가 연이어 시작된 가운데 참가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뜨거워진 '러닝 붐'의 영향으로 모든 대회에서 지난해는 물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다. 10월 8일 열리는 서울달리기는 7월 4일 접수 시작 하루도 안 돼 모집 인원 1만1000명이 모여 마감됐다. 지난해 개방된 청와대 앞 도로를 달리는 유일한 러닝 대회로 서울의 랜드마크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이 러너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쉽게 참가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원봉사 스태프 400명도 순식간에 마감됐다. 마라톤 대회에 대한 관심이 큰 러너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서로를 응원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3월 개최 예정인 2024 서울마라톤은 7월 18일 얼리버드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서울마라톤에 비해 5개월 가까이 참가 접수를 앞당겼음에도 첫 날에만 1만 명 넘게 접수가 이뤄졌다.

얼리버드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풀코스와 10km 코스 각각 2000명, 3000명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미리 항공편과 숙소를 예약해야 하는 3000여 명의 해외 참가자를 배려하고 보다 체계적인 참가자 관리를 통해 러너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접수 기간을 앞당기게 됐다.

본 접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풀코스 1만3000명, 10km 코스 1만7000명, 외국인 참가자 3000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한 세계육상 문화유산이자 국내 유일의 세계육상연맹 최고등급(플래티넘) 대회인 서울마라톤은 내년에도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김승현

특파원 소식

이윤상 베이징 특파원, 김기윤 카이로 특파원 현지 부임

차기 베이징-워싱턴 특파원에 김철중, 최주현 기자 선발…김민지 도쿄 특파원은 연임

이윤상 베이징 특파원

김기윤 카이로 특파원

김민지 도쿄 특파원

김철중 기자

최주현 기자

이윤상 신임 베이징 특파원과 김기윤 신임 카이로 특파원이 현지에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특파원은 7월 10일 부임해 공태현 특파원과 교대했고, 김 특파원은 8월 2일 부임해 강성휘 특파원과 교대했다. 이 특파원과 김 특파원의 임기는 각각 3년, 1년이다. 이들은 동아일보와 채널A 특파원을 겸한다. 동아일보·채널A는 베이징, 워싱턴, 도쿄를 담당할 새로운 해외 특파원도 선발했다. 김기용 현 베이징 특파원의 후임으로 김철중 편집국 기자(채널A 파견)가 선발됐다. 1년 임기의 워싱턴 특파원은 최주현 보도본부 사회1부 기자가 맡게 된다. 도쿄는 김민지 현 도쿄 특파원이 연임한다. 이번에 선발된 차기 특파원들은 내년 1월경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DAMG 행사소식

제39회 동아국악콩쿠르 성황리 개최

동아일보사 주최, 서울아트센터·동아꿈나무재단 후원

제39회 동아국악콩쿠르 시상식에서 각 부문 금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모습.

제39회 동아국악콩쿠르가 7월 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서울아트센터와 동아꿈나무재단이 후원한 이번 콩쿠르는 서울 종로구 서울예고 내 서울아트센터에서 예선(6월 12~16일)과 본선(7월 10~12일)을 진행했고 일반부 7명, 학생부 6명의 금상 수상자를 포함해 39명의 입상자가 나왔다.

작곡 부문 수석 입상자에게 수여하는 전인평 국악작곡상은 금상 수상자인 최지운 씨(27·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가 받았다. 민속국악사(대표 조대석)가 악기를 부상으로 주는 민속국악사상은 거문고 일반부 금상 수상자인 오지연 씨(20·한예종 2학년)와 학생부 금상 수상자인 이주언 군(17·국악고 3학년)에게 돌아갔다.

올해 콩쿠르에서 처음으로 민요 부문 수석 입상자에게 수여하는 경기음악연구회상은 가야금병창·민요 부문 금상 수상자인 사랑 씨(20·한양대 2학년)가 받았다.

DAMG 수상소식

편집국 조유라 기자 중앙의혈언론인상

편집국 조유라 기자

조유라 편집국 기자(사진)가 7월 10일 중앙대 언론동문회(회장 김대홍)가 선정하는 제11회 '중앙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뽑혔다.

조 기자는 올 2월 '이공계 블랙홀 된 의대' 단독 및 기획 시리즈 보도를 통해 이공계열 우수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의혈언론인상은 중앙대의 교육이념인 의와 참을 실천하고 한국 언론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동훈 / **동아일보** 사회부

① 유서 깊고 전통 있는 명문 언론사인 동아일보에 입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훌륭한 선·후배들로부터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취재하고 좋은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독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지 살피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③ 한국경제신문

김유경 / **채널A** 제작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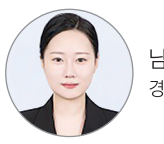
① 안녕하세요, 제작지원팀 김유경입니다. 채널A에 입사하여 설레고 떨립니다. 도전하는 자세로 변화하지만 변함없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② 최근에 서핑을 배웠습니다. 서핑의 매력에 빠져 영상을 보며 틈틈이 자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최해인 / **채널A** 제작본부

① 언제나 내일의 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미니멀 라이프로 살고 싶어서 비움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만… 잘 되진 않습니다ㅎㅎ
③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

최정원 / **채널A** 콘텐츠플러스본부

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취약한 부분에 있어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클래스101'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드로잉이나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창작의 뿌듯함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



남예진 / **채널A** 경영지원본부

① 필기하는 습관을 이용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② 저의 요즘 관심사는 도전해보고 싶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하기입니다. 아직 시도하진 않았지만 관심이 생기게 되어 알아보는 중입니다.